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2022. 11. 27(일) [오전] 10:00 ~ 11:30

| | | | | | | | |
|-------|--|--------|--|------|--|----|--|
| 고사실번호 | | 지원모집단위 | | 수험번호 | | 성명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찍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조각상이다. 보통 위쪽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를 그리거나 조각하고, 아래쪽에는 ‘천하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등의 글씨를 새긴다. 장승은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길을 안내하는 역할과 함께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장승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며 신성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마을 곳곳을 거행하며 장승을 새롭게 깎아서 세워 전염병을 막고 잡귀를 물리는 기원을 하는 한편, 주민 전체의 결속을 다졌다. 장승제는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왔던 농경사회의 각 마을이 단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구성

(나)

‘멀티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다중적 자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적 자아상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역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요즘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하나 이상의 다양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N잡러’라고 일컫는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연결돼 나타나면 ‘덕질’이나 취향 기반의 여러 활동으로 이어져 ‘취미 부자’로 불리게 된다. 실제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Z세대의 경우 평균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면서 계정별로 상이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시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라는 뜻으로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이성과 의지를 지닌 채 자유로이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동아 비즈니스 리뷰> 재구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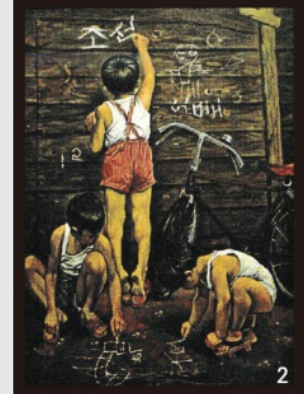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화 한국인 구00씨가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았다가 **카운터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구00씨는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외국인은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진 카운터 직원은 “당신의 외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입장을 막았다. 카운터 직원은 구00씨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한국 손님들은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라고 밝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재구성

(라)

이 그림은 ‘재일조선미술회’ 소속 작가인 표세종이 1958년에 그린 <내년은 우리 학교에>라는 작품이다. 1953년에 설립된 재일조선미술회는 백림이라는 미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백림의 연구에 따르면 재일조선미술회 소속 작가들은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렸다고 한다. 실제 이들은 ‘재일조선인의 생활’,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 ‘4·19혁명’ 등 다양한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백림은 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삶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관해 늘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2. 1. 10.) 재구성



(마)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외국 출신 이주자의 적응을 중시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전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에 가까워 소수 집단 문화를 한민족의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 다원주의적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우리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은 각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여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사회 구성원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과 모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여 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결혼이민자등: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 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일컫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및 『통합사회』 재구성

(바)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삼국통일 직후, **통일신라**는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음을 뜻하는 삼한일통의식(三韓一統意識)이라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을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옛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을 하나로 묶는 삼국유민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통일신라는 하나의 독립된 천하를 상징하는 중국의 9주제를 도입하여 전국을 9개 주로 편성하였는데, 삼국의 옛 땅에 각각 3개 주를 두어 대등하게 대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는 옛 삼국을 통합한 통일국가로서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삼국 유민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늘어난 영역과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려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또 통일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던 당의 동방정책을 무산시키고, 주변국과의 외교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종전의 삼국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석탑 양식을 창출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재구성

[문제 1]

밑줄 친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가) ~ (바)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바)의 통일신라와 <보기>의 영국의 사례에 나타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U(유럽연합)가 출범하고, 이는 유럽시민이라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 정체성은 2002년 단일화폐인 유로화의 사용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많은 유럽인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유럽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국가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유럽시민이라는 공동 정체성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2016년에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의 정책은 영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의 경우 새롭게 형성된 유럽시민으로서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오래전에 확립된 기존의 자국 정체성만 인정하는 비율이 EU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62%라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브렉시트를 영국의 장기적 비전 결여와 연관 짓기도 한다. 영국인들은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등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집행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인들은 EU의 후원 아래 개최되는 수많은 행사 및 에라스무스와 같은 교육·학술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어, 사회·문화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무역 손실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다.

- 윤성욱, 2017 「양날의 칼로서의 영국 정체성」 『영국연구』 재구성

[문제 3]

<보기>의 밑줄 친 주체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긍정적 유발 효과를 (마)를 참조하여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보기>

In the 1960s, without a sufficient workforce to hold an economic boom, the West German government allowed Turkish laborers to enter the country. Over three million Turkish workers immigrated to Germany with their families, building a big Turkish community. West Germany encouraged the immigrants, young children in particular, to learn German for successful assimilation*. Although this strategy appeared effective in uniting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Turkish included, it led to serious communication and identity problems.

Many studies find that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is facilitated when the home language is fully developed. Children of Turkish descent in Germany had difficulty learning German because they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learn their home language, Turkish, due to the assimilation policy. This is why the Turkish mothers, who were unable to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properly, began to resist the German government's emphasis on assimilation. In other words, they wanted their children to settle down and be successful in Germany without losing their home language and Turkish identity.

* assimilation: 동화, 흡수

- Austin Davis, 2015 "Repairing the Cultural Divide", Pulitzer Center 재구성